



새해가 밝았다.

대망의 2000년대로 진입하는 1990년대가 두해째로 접어 들었다. 축산업에 몸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우울하게 지난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은 것이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UR 결사반대”만 외치고 있어야 할까? UR 자체를 없앨 수는 없을까?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으면 우리 뜻대로 될만큼 우리의 힘이 큰가? 아니면 문을 닫아 걸고 우리끼리 살면 되는 건가? 여러가지 생각을 해 본다.

밖에 나가서 협상하는 일은 맡은 사람들을 믿고 맡겨 보자. 협상대표에게 양돈업계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들도 있다. 양돈장에서 일하는 우리가 대비할 일은 없는가 생각해 보자. 축산물 시장문을 활짝 열어도 감히 외국의 돼지고기가 우리시장에서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로 좋은 품질의 돈육을 생산하자. 또 아주 싸 값으로 돼지를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자.

돼지 키우는 분들과 얘기하다 보면, 우리나라 양돈의 수준이 아주 낮은 것처럼 판단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종돈과 사료품질, 사육기술과 시설, 약품과 인력 등에서 우리나라는 외국과의 경쟁에서 당연히 뒤떨어진다고 많은 분이 생각한다. 필자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세계에서 유명한 종돈장과 육종회사에서, 또 돼지 잘 키우는 나라

새해에 생각한다



유 성 열

(삼양사 사료시험장장)

에서 일년이면 좋은 종돈이 천 두 이상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종돈이 그 정도면 엄청난 두수이다. 몇년전 우리나라 때문에 세계의 쇠고기 수출가격이 갑자기 올랐던 것처럼, 종돈도 너무 많이 수입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또 종돈능력 검정소의 결과는 우리 종돈도 결코 외국에 비해 낮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사료의 품질은 최근 몇년사이 엄청나게 좋아졌고 대부분 외국의 사양표준에 가깝게 접근해 있다. 사료종류와 형태도 다양하여 얼마든지 골라서 쓸 수 있게 되었다. 원료나 제조공정상의 문제로 하자가 있을 지언정 설계품질에는 문제가 없고 에너지 수준도 높다.

특히, '70년대 중반처럼 싸게 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석회석을 5%

씩 넣고 생산했다가는 한달이 못되어 양축가로부터 외면당한다. 양돈인의 수준도 높아졌다.

정상적인 국내 양돈장이라면 외국에 돼지 다루는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을 정도로 사육수준이 높다고 80년대 초반에 미국으로 이민간 선배로부터 듣고 있다. 사료자원도, 좋은 종돈도 보유하지 못한 우리나라는 양돈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육기술은 어느 나라에도 뒤떨어지면 안 된다.

돼지 사육시설 전체를 평균해 보면, 유럽의 축산선진 몇 나라를 제외하면 규모가 작아 그렇지, 수준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외국의 새로운 시설중 첨단기술을 응용한 몇몇 가지를 빼면 우리나라에서도 만들 수 있고, 또 설치해서 쓰고있는 양돈장이 있다.

양돈장의 시설이란 아무리 좋아도 규모와 특성 그리고 지역의 기후와 환경에 어울려야 하고, 양돈장안의 다른 시설들과 맞아야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발달된 “발효돈사”가 있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겨울 기온이 일본보다 낮다. 중부이북에서 발효돈사내에 돼지를 키울 때는 겨울 환기를 잘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발효돈사의 잇점보다 환기불량으로 인한 질병피해가 더 크게 된다.

돈방바닥을 삼으로 뒤집어 주는 고된 작업은 심각한 인력난인 요즘

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실제로 시설의 효율성은 높는데 종업원이 떠나 버려 “발효돈방”을 포기한 양돈장도 있다.

인력이 문제가 되어 기계로 갈아엎으려면 돈방 크기가 7~10평은 돼야 적당하다. 돈방이 이렇게 크면 사육두수가 적을 경우 한 돈방의 돼지체중이 고르지 못해서 성장에 지장을 받는 돼지가 생긴다.

약품이란 돼지 키울때 생기는 “-요인”을 “0”으로 회복시키거나 “-요인”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대부분이 쓰인다. “+효과”를 얻기 위해서 쓰는 약품은 아주 작은 양이다. 우리나라 돼지 질병중 병의 이름만 알면 치료약은 다 있다. 한 두가지 질병만 예외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보자.

많은 양돈장들이 일손 부족으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외람된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 고통의 대부분은 사장의 고통이다. 요즘같은 인력난에도 고통을 받지않고 거기다 종업원이 열심히 일하는 양돈장도 적지 않다. 그런 양돈장은 생산성이 높아서 불황도 모른다. 왜 그런 차이가 날까?

고통을 느끼는 사장님들 중 많은 분들은 그동안 호황으로 얻은 이익을 돈을 벌게 해 준 양돈장에 투자를 적게 했다. 기계화 자동화를 미리 했더라면 일할 사람들이 작업환경이 불량하다고 꺼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는 양돈장이 “돼지 키우는

곳”이 아니고 “돼지 키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라야 돼지를 키우는데 어려움이 적고 돼지도 잘 크는 양돈장이 될 것이다.

국내에도 양돈 전문가는 많고, 양돈과 관계되는 업종도 많아졌다.

대학에는 축산, 수의, 사료관계 학과가 50여개나 된다. 축산관계 정부 기관 연구기관도 있다. 수많은 종돈장에 종류도 많다. 지방에는 수많은 가축병원이 여러분을 도와준다.

종돈수입상과 인공수정센터는 우리나라 돼지 품질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세계의 유명한 회사의 새로운 약도 빨리 공급된다. 시설·기구상도 많고 그 종류도 엄청나게 다양해졌다. 양돈장 시설에 응용할 수 있는 전기·전자기계 부품과 시설이 국내에서 생산된다.

위에 적어 본 것처럼 양돈업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위에 널려 있다. 이것을 얼마나 효율성 있게 돼지 키우는데 활용하는가는 “사장님” 손에 달려있다.

지난해 지상에 보도됐지만, 이웃 일본은 생산성도 높지만 돼지 4,000두를 네사람이 관리하고 있다. 우리라고 못해 벌리 없다. 돼지로 번 돈을 돼지에 투자한다면 훌륭하게 해 낼 수 있다.

사장님은 직접 돼지를 키울 각오가 있는지? 앞으로 전업규모는 주인이 직접 키우지 않으면 경쟁력이 약해질 수 밖에 없다.

질병에 문제가 있어도 해결 방법

양돈장 “무엇이 문제인가”를 파악하고 돼지에서 번 돈을 돼지에 투자하여 수많은 기술을 높임으로 2000년대에는 종돈을 수출 할 수 있는 힘을 길러 나가자.

은 있다. 질병문제를 인정하고 외부에 도움을 청하는 결단을 내리기가 지가 어렵다. 결단을 내려서 해결하는 것이 피해가 적은가, 피해를 보면서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은가? 5년만 피해금액을 산출해 보면 알 수 있다.

무엇이 양돈장의 문제인가를 조사해 주는 전문가도 있다. 무엇이 이 양돈장에 도움을 주는가를 알려주는 전문가도 있다. 사장님은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결정하면 된다. 그것도 모르겠으면 물어 보면 된다. 사장님이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전문가의 높은 수준의 도움을 못 받게 된다. 좋은 종돈이 없으면 비육돈의 질이 높아질 수 없다. 좋은 시설이

아니면 작업효율이 높아지지 않는다.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작은 것은 무시하고, 큰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큰 것도 따지고 보면 작은 것들의 좋은 점이 모여서 만들어진다.

돼지는 소나 닭처럼 몇가지 큰 것으로 사육이 어렵다. 종축·번식·육성·비용이 모두 중요하다. 여러분 이웃에는 낡은 시설, 별볼일 없는 종돈과 짧은 경험으로 슬슬 노는 듯 하면서도 알뜰하게 꾸려나가는 양돈장도 있다. 또 이런 곳은 남보다 더 쓸쓸하게 재미도 본다. 알뜰하다

는 것은 큰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작은 것 여러가지를 잘한다는 얘기다.

돼지 키우는 수많은 기술의 수준을 높여서, 아주 낮은 비용을 들여 돼지고기를 생산하면 무서울 것이 없다. 또 외국에서 새 기술, 새 시설이 나타나면 우리에게 맞도록 고쳐서 쓰면 된다.

사장님의 문제는 누군가가 경험했던 일로서 해결방법이 나와 있다. 또 누군가는 똑같은 일로 머리가 아프다. “무엇이 문제인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어 보자. 얘기하다 보면 문제는 작은 것

에서부터 풀려나가게 된다. 양돈장 현장일에 충실하고 양돈업을 슬기롭게 꾸려나가면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기초도 점차 탄탄하게 다져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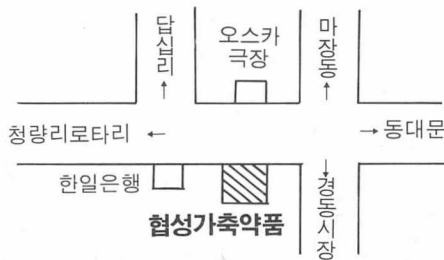
작은 일들을 잘 풀어나가는 좋은 방법은 사장님들이 경험으로 많이 가지고 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어 가지자.

“수입에 밀리지 않을까?”를 생각하고 있는지? “돼지고기를 수출하자!”고 생각해 본적은 없는지?

다가오는 2000년대에는 우리도 종돈과 돼지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힘을 지금부터라도 길러나가자.

동물약품도매전문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30년 전통의 판매업소
가축용 예방약, 치료제, 소독제 등 일체총판
주야 전화상담환영 (질병문의 및 판매업소 개설상담)
지방주문 환영 (신속하고 정확한 우송)



협성가축약품

* 동물 약품 도매전문 *

☎ 131 서울·동대문구 제기1동 654
(오스카극장 앞)

본사 967-8779, 964-4870

청량리영업소 965-9778